

大河기획/한라산 학술대탐사(178회)

제2부 한라대맥을 찾아서-(12)좌보미·백약이오름
비밀스런 아름다움과 담백한 멋

입력 : 2003. 12.26. 00:00:00



주위는 어느새 회색빛 풍경으로 변했다. '한라대맥' 답사를 시작할 당시만 해도 잔존했던 녹음은 푸르름을 잃었다. 대신 오름너머의 중산간은 회색빛 풍경이 넘실댄다. 그 살풍경을 비집고 몰아치는 칼바람이 매서움을 더한다. 지난 11월 22일에 떠난 좌보미와 백약이 오름 답사

는 그렇게 시·공간적 풍경의 뚜렷한 변화를 실감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좌보미오름

'좌보미'는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오름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위치상으로는 표선면의 가장 동북쪽 오름이다. 구좌읍과 성산읍 표선면의 접경을 이루는 삼각지에 여러개의 오름이 커다란 산체를 이룬다. 표고 342m의 오름으로 문헌과 고지도 등에는 한좌보미(閑佐甫山)·한좌오름(閑坐岳)·좌보미(左甫山)·좌부오름(左釜岳) 등으로 표기돼 왔다. 이름에 한(閑)을 생략해서 좌보미로 부르기 시작한 것은 대략 18세기 초부터로 알려진다. 부종휴 선생은 산 모습이 앉아 있는 범과 같다고 해서 좌범(坐虎)이 오름이라고 한다고 했다.

답사 전부터 약간의 설렘을 간직하고 떠난 길이다. 그렇지만 좌보미는 그 속내를 쉬이 드러내지 않았다.

멀리서는 개별적이면서도 중첩된 풍경을 이루는 오름군, 주봉을 필두로 하나를 올랐는가 싶자 어느새 꼬리를 물고 이어진 봉우리는 커다란 것만도 5개나 된다. 보는 이에 따라서는 7개로 파악하기도 한다. 이처럼 여러개의 오름이 무리지어 하나의 산체를 이루는 경우는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오름의 형성과정이라든가 구조는 뚜렷이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굽부리 역시 깔대기형으로 깊숙이 패여 있는가 하면, 얇게 또는 말굽형으로 다양하다.

이처럼 좌보미오름은 구성의 비밀을 감춘 오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웃한 동거미오름과 구성이 닮은 꼴이다.

북쪽으로 동거미오름 사이에는 곳자왈지대가 펼쳐져 있고 능선 자락에는 알오름이 봉긋봉긋 솟아 있다. 마치 대지가 꿈틀거리는 듯하다.

하지만 쇠말뚝처럼 박힌 채 우뚝우뚝 솟아있는 송전탑은 대지의 생명력을 훼손하는 주범이다. 좌보미에서 바라본 송전탑은 동거미오름 사이 곳자왈지대를 지나 길게 늘어졌다. 탁트인 조망을 해치는 괴물같은 모습으로 버티고 섰다.

△백약이 오름

서쪽으로 지척인 백약이오름은 얼추 1백여가지 많은 약초가 난다 해서 붙여진 이름. 18세기부터 백약이오름(百藥峰·百藥岳)으로 불려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좌보미가 그 속내를 쉽게 드러내지 않는 반면 백약이오름은 단순·담백하면서도 어머니의 품처럼 넉넉함이 매력이다.

완만하게 펼쳐진 경사면을 따라 표고 357m의 백약이오름을 올라보라.

그렇게 깊지 않은 분화구(바깥둘레 약 1,300m 깊이 49m)가 활짝 열려있고 단조로우면서도 때로는 물결치듯 유연한 능선이 한바탕 휘감았다. 사람을 확 끌어당기는 극적 요소는 덜한 대신 한없이 평온함을 안겨준다.

옥에 티라면 백약이오름 역시 인위적 요소로 인한 파괴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경사면은 목초를 재배하기 위해 드나들던 트랙터 바퀴자국이 점차 침식 등으로 인해 깊게 골이 패이는 등 험한 속살을 드러냈다. 범위 또한 상당히 넓어 흉물스럽기 그지 없다. 제 때 치유가 안된다면 파괴의 심각성이 우려되는 상태다.

백약이오름에서는 지금도 수량은 적지만 콩과식물의 향기를 비롯 도라지나 잔대 바늘엉겅퀴 등을 볼 수 있어 이전 명성을 짐작케 한다. 또한 국수나무 균락이 발달해 있고 쥐똥나무균락과 굴피나무 때죽나무 등의 식생도 보인다.

뿐만 아니라 백약이오름 일대는 조선시대부터 운영해온 국영목장의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다.

북서쪽 사면에는 조선시대 쌓아올린 하잣성의 일부가 중간부분이 잘려나간 채 길게 이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규모는 대략 폭 60~70cm, 높이는 1m 정도, 겹담으로 수십미터 이어졌다. 아마도 이 잣성은 10소장(所場)과 1소장의 경계를 이루는 '간장'(間牆)이었을 것이다. 즉 간장을 경계로 북서쪽 구좌읍 중산간 일대는 1소장이, 백약이를 포함한 일대는 10소장을 형성했다.

좌보미오름 주변에서도 수량은 적지만 신석기시대 토기편이 확인되는 점으로 미뤄 이곳 일대는 선사시대부터 삶의 무대를 형성했음을 알 수 있다.

정광중 탐사위원은 "이곳의 잣성은 단순한 돌담이 아니라 적어도 600년이나 된 목장시설의 일

부로 국가가 주도하여 설치한 산업시설물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특별취재팀

[사진설명]오름능선이 오르락내리락 하며 봉우리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좌보미 오름. 범이 하늘을 쳐다보며 앉아 있는 형상이 연상되는 등 비밀스런 아름다움을 뽐낸다./사진=강경민기자 gmkang@hallailbo.co.kr

[전문가 리포트]좌보미의 형성

좌보미는 그 서측에 위치한 백약이오름과 같이 분석구로 구성되어 있으면서도 일반적인 분석구 화산체와는 다른 형태를 보여준다. 즉, 뚜렷한 화구의 위치를 찾기가 매우 어렵고 오름산체의 중심을 찾기 또한 어렵다. 이러한 복잡한 지형을 나타내는 오름들의 대부분은 오름 산체의 일부가 붕괴되어 형성되는 것이다. 오름(분석구) 산체의 부분붕괴를 일으키는 요인으로는 1)분석구 형성 이후의 용암 분출, 2)기존 분석구 하부에 발생한 다른 형태의 화산활동, 3)분석구를 형성시킨 지질구조선의 재활동 등에 의해 주로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좌보미에서 분출된 용암과 분석구가 붕괴되면서 형성된 화산성암설사태층은 남쪽방향으로 넓게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오름과 화산성암설사태층은 구좌읍의 동거문오름, 둔지봉, 지미봉, 성산읍의 따라비, 모지오름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좌보미의 경우 화산활동 초기에는 마그마 내에 모인 많은 양의 가스함량에 의해 비교적 폭발적인 분출이 발생하였으며, 분출된 화산암편(분석, 스킨리아 또는 송이)과 화산탄 등이 화구 주변에 떨어져 현재의 백약이오름과 유사한 형태의 사면경사가 급하고 원추형 모양의 분석구를 형성하였을 것이다. 한편, 화산활동 초기에 원추형의 분석구를 형성시킨 현무암질 마그마는 점차 가스성분이 많이 빠져나감에 따라 용암류를 분출하는 화산활동으로 변하였을 것이다.

분석구에서의 용암류를 분출시키는 화산활동에서는 용암이 화산의 정상부에서 유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일반적으로 화구의 한 면에 형성된 갈라진 틈을 통하거나 분석구 측면에 위치한 별개의 화구로부터 흘러나온다. 좌보미에서는 원 화구의 남동쪽과 남서쪽에 형성된 갈라진 틈을 통하여 용암류가 흘러나갔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때 남측면은 흘러나가는 용암류에 의해 대부분 파괴되고 용암류의 상부에 실려(마치 용암류는 컨베어벨트와 같은 역할을 하고 분석들은 그 위에 실려진 물건과 같이) 운반되어 넓게 퍼졌을 것으로 분석된다.

/정차연 탐사위원(농업기반공사/ 지질분야)

[전문가 리포트]백약이오름(百藥岳)의 식생

백약이오름은 주변의 좌보미오름, 동거문이오름보다 단순하게 생긴 오름인데 비하여 이름은 유용한 식물이 아주 다양하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오름이다.

한반도에 분포하는 식물은 약 4,000종이고 제주도에는 1,800여종 이상의 식물이 분포하는데 유독 백약이오름만이 유용한 약초가 많이 분포하는 것을 의미하는 '백약(百藥)'이라는 오름명이 유래하였을까, 과연 어떤 식물들이 분포할까 하는 기대반 설렘 반으로 백약이오름을 탐사하였다.

오름 하부는 목초지로 개간되어 목초를 재배하기 위하여 경운하던 트랙터 바퀴가 남긴 흔적으로 물길의 형성이 계속 훼손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금도 목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초지에는 외래식물인 목초류와 서양금혼초(개민들레), 크로버 등이 지피식생을 이루고 있었다.

오름 중간 일부 지역은 억새군락으로 띠, 억새, 멧석딸기, 제주피막이 등 전형적인 초지의 모습이 관찰되었고, 근래 화입이 금지되어 찔레, 국수나무, 쥐똥나무 등 키작은 나무들은 초지대에서 다음 단계인 관목지대로 천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오름 분화구 안쪽에는 굴피나무, 예덕나무, 상산나무, 쥐똥나무 등 키작은 나무와 키큰나무들이 어울려 원래의 식생으로 회복하는 단계로 추정되었다.

백약이오름 동북쪽 가장 높은 봉우리에 산철쭉 군락, 바늘엉겅퀴 등이 지면에서 4~50cm정도 되는 높이에서 포복상으로 자라고 있는데 이러한 식물들은 한라산 고산지대(해발 1,000m 이상)에 주로 분포하는 종으로 제주오름에 고산성 식물이 남아 있는 현상, 즉 경쟁에 취약한 식물들의 종 피난처로서 오름의 역할을 볼 수 있었다.

구전으로 전해오는 '백약이오름'의 수많은 약용식물은 대부분 원식생의 파괴와 계속되는 약용식물의 채취로 조사할 수 없어 아쉬움을 남겼지만 분화구 내와 정상 일부지역에는 다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도라지, 잔대, 바늘엉겅퀴, 탐라황기 등이 소수이지만 관찰되어 과거 풍부하였던 약용식물들의 서식지임을 짐작하게 하여 주었다.

/강영제 탐사위원(제주임업시험장/ 식생분야)

특별취재팀/ 한승철부장(기획특집부)·강시영·이윤형차장 (〃)·표성준(편집부)·강경민 기자(사진부)

후원 : 한국언론재단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